



CJ대한통운, 농협중앙회와 농촌 상생 활동

CJ대한통운은 농협중앙회와 '농촌 상생 확대 및 물류 전문성 활용 상호 협력' 추진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함께 농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줄 왼쪽 7번째부터)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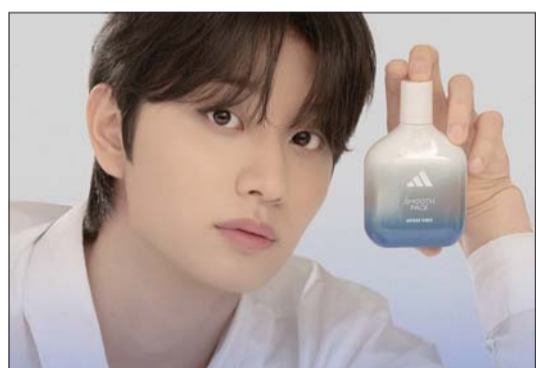
HMM 임직원, 저소득층 아동 교육 환경 개선

HMM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의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벽화 그리기 봉사와 더불어 HMM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등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함께 전달했다. /HMM



마사회, 과천시민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 마련

한국마사회가 지역 시민들을 위한 가족단위 행사를 마련했다. 가족 복지를 증진하고 말산업을 활용한 차별화된 여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일 경기 과천시민 초청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마사회의 과천시민 초청 행사 모습. /마사회



아디다스 바이브, 김재원과 남성 향수 시장 공략

아디다스 향수 브랜드 '아디다스 바이브'가 국내 젊은 남성 향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코티코리아와 LG생활건강은 아디다스 바이브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재원을 발탁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우 김재원이 '아디다스 바이브'를 소개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교원 웰스, '신신당부' 시리즈 1300만 뷰 돌파

교원 웰스(Wells)의 웰니스 토크쇼 '신신당부' 시리즈가 누적 조회수 1300만회를 돌파했다. 14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신신당부는 자사의 브랜드 앰배서더 신애라가 생활 속 웰니스 노하우를 공유하는 토크쇼 형식의 유튜브 콘텐츠다. /교원

르망 무대 밝은 제네시스... 퍼포먼스 브랜드 도약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GMR-001 적용 스페셜 리버리 공개

제네시스 브랜드가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인 '르망 24시간' 하이퍼카 클래스에 첫 출전에 한국 모터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작성했다.

1923년 창설돼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회에 도전장을 내민 제네시스는 유럽 4개국 추가 진출을 발표함과 동시에 달려십 판매 체제를 통한 판매량 확대로 북미에 이어 유럽 시장 공략에 힘을 심는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회는 13일(현지시간)부터 14일 까지 개최되며 약 14km 길이 서킷을 24시간 동안 주행해 가장 긴 거리를 달린 팀이 우승한다.

호세 무노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르망 24시간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퍼포먼스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며 "레이스를 통해 얻은 경험은 향후 마그마 퍼포먼스 차량 개발과 사업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고



제네시스 스페셜 리버리가 적용된 GMR-001 #17(왼쪽), #19.

말했다.

제네시스는 르망 24시간 데뷔를 앞두고 하이퍼카 'GMR-001'에 적용할 스페셜 리버리도 공개했다. 이번 리버리는 지난해 공개된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차량 전면의 마그마 오렌지에서 후면의 짙은 레드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고성능 레이싱카의 속도감과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차량 측면에는 한글 '마그마' 레터링을 적용했다.

제네시스는 르망 현장에서 '마그마 GT 콘셉트'의 실내 디자인과 '마그마 GT3 콘셉트'도 공개했다.

마그마 GT 콘셉트는 2인승 럭셔리 그랜드 투어러로, 드라이버 중심 설계와 아날로그 감성을 강조한 실내 구성이 특징이다. 디지털 정보는 최소화하

면서 직관적인 조작 환경을 구현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된 마그마 GT3 콘셉트는 GT3 규정을 반영해 개발한 레이싱 전용 콘셉트 모델이다. 공력 성능과 냉각 효율, 열 관리, 내구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루크 동커블게 현대차그룹 글로벌 디자인본부장 겸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는 "마그마 GT 콘셉트와 마그마 GT3 콘셉트는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퍼포먼스 방향성을 각각 도로와 레이스 환경에서 보여주는 모델"이라며 "제네시스 퍼포먼스 브랜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모터스포츠 활동과 함께 유럽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에서 판매 중이며, 내년에는 폴란드·오스트리아·포르투갈·덴마크에 진출해 유럽 11개국으로 판매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미그룹, 첫 ESG 보고서 발간

그룹 차원 지속가능경영 강화 ESG경영위 중심 의사결정 구축

한미그룹이 지주사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를 강화한다.

한미그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한 올해 첫 번째 ESG 보고서를 발표했다. 14일 밝혔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의 각 보고서는 국제 공시 기준 GRI를 비롯해 ISBB, ESRS 등에 따라 작성됐다. 또 영향 중대성과 재무 중대성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환경·사회적 영향 및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처음 발간한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ESG 보고서는 기존 개별 회

사 중심의 ESG 활동을 그룹 차원의 수준으로 확장해 담았다. 특히 사업장 안전보건, 고객 안전, 윤리준법경영, 정보보안 등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각 이슈별 대응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미그룹은 ESG 경영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ESG경영위원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새롭게 구축해 기후 변화, 인권, 안전, 윤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기존 한미약품 중심으로 발간해오던 ESG 보고서를 한미사이언스까지 발간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ESG 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제약산업 전반의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ESG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경영을 고도화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원F&B, 1400억 투입 제2공장 가동

'프로틴 넥서스'로 글로벌 공략 속도

동원F&B가 1400억원을 투자한 신규 생산기지를 가동하며 단백질 식품 사업 확대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수산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연제품부터 가정간편식(HMR)까지 생산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동원F&B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에 진천 제2사업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총 1400억원이 투입된 진천 제2사업장은 연면적 8000평(건축면적 4400평), 지상 2층 규모의 첨단 생산시설이다.

이번 준공으로 동원F&B는 기존 진천 제1사업장의 리챔(캔햄), 그릴리(냉장햄) 등 육가공 제품에 이어 제2사업장에서 어묵·맛살 등 냉장식품과 볶음밥·치킨 등 HMR을 생산하는 단백질 식품 생산 플랫폼 '프로틴 넥서스(Protein Nexus)'를 구축했다. 기존 육류 단백질뿐 아니라 수산 단백질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동원F&B가 단백질 식품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낙점한 것은 글로벌 시장



동원F&B 진천사업장 '프로틴 넥서스(Protein Nexus)' 전경 /동원F&B

성장세 때문이다. UN 식량농업기구(FAO) 등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는 100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단백질 수요는 2010년 대비 7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육류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단백질원으로 수산 단백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진천 제2사업장은 어육 함량을 80% 이상으로 높은 프리미엄 어묵과 맛살 생산에 주력한다. 하루 최대 40톤, 약 13만 개 생산이 가능하며 첨단 설비를 도입해 식감과 수율 등 품질 경쟁력을 강화했다. 동원F&B는 앞서 출시한 '리얼 판자 크랩스'의 판매 호조를 통해 프리미엄 연제품 시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진천 제2사업장을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공모

해수부, 내달 3일까지 신청

해양수산부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선가의 30%에서 60%까지 지원한다. 선사는 해당 선박의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 후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여객선 8척과 연안화물선 3척 등 총 11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 그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코리아프라이드(백령-인천)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0척 중 5척이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건조된 대형카페리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척당 750~1,300여 명의 대규모 여객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노선 탑승객의 76%를 분담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교통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선박 건조 비용 증가로 신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선가가 150억 원 이하일 경우 60%,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일 경우 50%, 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0%를 지원하는 등 구간별 선가 기준을 2.5배 상향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부음 ▲ 송석례씨 별세, 김지수·김덕수(전 여신금융협회장)·김두수·김영일·김영선씨 모친상, 최주락씨 빙부상, 최미숙·원희숙·이연희씨 시모상 = 13일, 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20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042-600-6666
- ▲ 이현숙씨 별세, 조용호(전 경남신문 부사장)씨 부인상 = 13일 오후 8시, 경남 창원시 창원한마음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055-225-1200
- ▲ 이춘우씨 별세, 이상조·이상준·이상현(스푸트니크 한국특파원)씨 부친상 = 13일 오후 7시 49분,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5일 오전 11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650-5121
- ▲ 김정희씨 별세, 김영춘(김앤장 법률

- 사무소 고문)·미옥·미란 씨 모친상 = 13일 오후 3시, 충남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6일. 042-280-8181
- ▲ 김순안씨 별세, 조은혜(OSEN 기자)씨 조모상 = 13일, 보은요양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30분. 043-542-4440
- ▲ 김영옥씨 별세, 박진홍(더팩트 대구 경북취재본부장)·박진혁(사업)씨 모친상, 서병길(변호사)·장수찬(의사)씨 장모상 = 14일 오전, 경북 경주전문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16일 오전 6시 50분. 054-744-4000
- ▲ 김현배씨 별세, 김지훈(그룹 크나큰 멤버)씨 부친상 = 13일, 화성함백산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35분, 장지 미정. ☎ 031-293-4244